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해운 서비스를 위해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를 지원한다

-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29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정부는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하며, 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면서 15년간 선박 건조비를 나누어 상환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지난해까지 총 1,990억 원이 조성되어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6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하였다.

특히 올해는 연안여객선 뿐만 아니라 선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 화물선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0억 원 등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3개 연안여객선사 뿐만 아니라 795개 연안화물선사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 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www.globalmarifin.com)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여건 및 신뢰도 등 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을 통해 여객선 신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연안 여객선의 안전 운항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안선박의 신조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 장	도경식 (044-200-5730)
		담당자	사무관	한정수 (044-200-5731)

참 고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현황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정부 출자를 통해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부담을 결합하여 선박대여회사 설립 및 선박 건조
- (사업기간/펀드규모) '16~'27 / 3,000억 원
 - * '16~'22년까지 2천억원 출자하여 연안여객선 건조지원/ '24년부터 내항화물선 지원을 위해 1천억원 추가 출자
- (지원대상/펀드운영)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 (주)세계로선박금융
- (지원조건) 국내 조선소 건조 시 건조가의 최대 60% 무이자 지원
 - * 선박대여회사가 선주가 돼 선사와 장기 용선계약(15년)을 체결하고 여객선사는 용선료를 지불해 펀드 투자금 상환(3년거치 12년 분할상환)

구분	현대화펀드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자부담
선가 120억 초과	30%	산업은행 40% + 민간금융 20%(해진공 보증)	10%
선가 60억 초과 120억 이하	50%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40%(해진공 보증)	10%
선가 60억 이하	60%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30%(해진공 보증)	10%



□ 지원현황

지원선박	선사명(선명)	항로	선종	총톤수
1	한일고속(실버클라우드)	완도-제주	카페리	19,700톤
2	한일고속(한일골드스텔라)	여수-제주	카페리	19,700톤
3	에이치해운(울릉썬플라워크루즈)	후포-울릉	카페리	13,000톤
4	씨월드고속훼리(퀵제누비아)	목포-제주	카페리	26,700톤
5	현성MCT(오션비스타제주)	삼천포-제주	카페리	20,500톤
6	고려고속훼리(코리아프라이드)	인천-백령	쾌속선	1,300톤